

2008년 12월 17일 (수) 07:33 [연합뉴스](#)

<2008 대구> ③공연문화도시 '이대론 안돼'

생산성 저조...내년 문화재단 설립에 '기대'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전국에서 처음 이름붙인 '뮤지컬도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개최되는 '오페라축제'.

최근 몇 년간 대구에서 공연예술 혹은 문화산업 부문에서 부각된 키워드들이다.

대구의 지독한 폭염에 착안한 '국제호러공연예술제', [한국관광공사](#)가 주도하는 년별 행사 '[코리아인모션](#)'이 가세하면서 어느 새 대구시의 문화정책에는 '봄=뮤지컬, 여름=호러물, 가을=오페라, 겨울=년별'이라는 분류가 자연스레 생겨났다.



더군다나 대구시는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3천700여억원을 투자해 경주 역사문화도시, 전주 전통문화도시, 부산 영상문화도시처럼 지역거점 문화도시 개념으로 '공연문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야심찬 기획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대형 공연물에 무대만 제공하는 수입상 역할에 그쳐 '공연하기 좋은 도시'에 머물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자체 생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 뒤 지역 공연발전의 근간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 '넘치는' 공연 인프라 =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제외하고 대구의 공연시설은 규모나 품질 면에서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 [오페라하우스](#)를 비롯해 대구시민회관, [수성아트피아](#), 얼마전 개관한 계명아트센터 등 1천석 이상 규모의 대공연장을 갖춘 시설이 9 곳이나 되고 등록 공연시설만 30여 곳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대구의 8개 구.군 가운데 7개 자치구가 자체 문화예술회관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수치로 환산한 비율(87.5%)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여기에 대구시는 사업비 390억원 규모의 전국 첫 뮤지컬 전용극장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 내년말 착공해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완공할 계획도 있다.

◇ 이름만 '국제', 백화점식 문화행사.. = 대구가 이처럼 풍부한 공연시설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그 내용물은 알차지 못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계절별 테마 문화행사들은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데다 대구 국제오페라축제 등 몇몇 굵직한 행사들의 올해 관객 수는 예년보다 크게 줄었다.

고작 인근 아시아지역 2-3개국만 참여하는 데도 이름만 거창하게 국제적(?)인 행사들도 있다.

또 컬러풀 대구페스티벌, 자치구별로 개최하는 각종 축제를 합치면 지역에서 한해동안 열리는 '~제'라는 이름의 문화행사들은 수십 가지도 넘는다.

대구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류병노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각종 축제를 열고 있지만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유사 행사는 통폐합하고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문화 생산성··'글쎄' = 빈약한 문화 콘텐츠, 창의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한 점도 짚어야 할 대목이다.

또 다시 장기 공연 중인 뮤지컬 '[말미아](#)'처럼 대구에서 지금까지 히트한 대형 수입 공연물은 기획사 등을 통해 서울지역에서 들여온 것들이다.

여기서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긴 하지만 이것이 지역 공연발전의 근간에 재투자되는 구조는 아니다.

공연예술의 양극화 현상 속에서 연극과 같은 기초 예술분야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줄고 지역의 대표적 창작물이 없는 상태에서 대구가 마치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구호처럼 '공연하기 좋은 도시'에만 머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기획사 뉴컴퍼니의 이상원 대표는 "공연중심도시가 되려면 대형 공연물의 수입상 역할만 할 게 아니라 자체 생산구조를 가져야 한다"며 "특히 국립 극장에서 1년에 1편 정도는 작품을 제작해 무대에 올리고 '[스크린 쿼터제](#)'처럼 국·공립 공연장의 '스테이지 쿼터제'와 같은 제도 시행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대구문화재단 설립, 돌파구될까? = 이처럼 관(官) 주도의, 보여주기에 치중한 공연문화가 지배적인 가운데 최근 대구문화재단 설립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문화재단은 지난 5월 '대구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가 공포되면서 현재 대구경북연구원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며, 기본재산 185억원을 토대로 내년 3월께 출범할 예정이다.

대구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복지 향상을 통해 문화창조 도시를 구현하고 문화예술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창의성을 실현하기 위해 민간의 역량과 자율성을 극대화하도록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라는 설립 취지를 갖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가 문화산업도시를 지향해 오면서 다양한 시도를 하다 보니 일관성이나 구심점이 없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내년부터 공연문화도시 세부계획 수립에 들어가게 되면 큰 줄기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mshan@yna.co.kr

(끝)

[< 긴급속보 SMS 신청 >](#)

[< 포토 매거진 >](#)

[< 스포츠뉴스는 M-SPORTS >](#)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